

미혼 성인의 부모신념형성에 관한 연구: 아동기 내적 표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arental beliefs of the unmarried : Focused on the internal representation of childhood and communication of one's parents

김연하*·정민자·김양은

University of Missouri 박사과정·경희대학교 강사·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박사과정

Kim, Yeon Ha · Jung, Min Ja · Kim, Yang Eu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University of Missouri

Dept. of Child Development, KyungHee University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of parental beliefs. For this study, 154 unmarried university students were asked to fill in a packet of survey questionnaire about parental beliefs, the internal representation of childhood, and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by SPSS PC program. It was reported that the internal representation of parenting formed in childhood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rational authoritative beliefs, distancing beliefs, and direct authoritative beliefs. Also, the op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affected the distancing beliefs and rational authoritative beliefs.

Key words : parental beliefs, internal representation, rational authoritative beliefs, distancing beliefs, direct authoritative beliefs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부모의 신념이 부모의 양육행동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부모 신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McGillicuddy-DeLisi, Sigel, & Johnson, 1979; Sigel, 1985). 그 결과 부모가 아동을 능동적 구성자로 보고 그들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아동의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McGillicuddy-DeLisi, 1985; Sigel, 1992). 이렇듯 부모의 신념이 아동발달을 예측하고 부모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부모신념의 형성과정과 그 변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

졌다. 많은 연구 결과, 부모의 신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아동의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자녀양육경험 등으로 밝혀졌다(Block, 1983; Johnson & Martin, 1985; Miller, 1988; 이희선, 1996; 김연하, 1998). 즉 부모신념의 형성과정과 관련된 이러한 변인들은 대부분 부모 외적인 요인들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모의 양육행동의 형성과 발달과정을 탐구하는 일련의 최근 연구동향이다.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행동 연구에 가족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근원가족(the family-of-origin)의 경험과 양육행동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으며, 부모의 근원가족과의 경험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미자, 1998; 정문자·전연진·김진이, 2004). 따라서 양육행동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는 부모신념의 형성과 발달과정

* Corresponding author : Kim, Yeon Ha

Tel. (02) 953-3872, (016) 9800-3870 Fax. (02) 953-3872

E-mail : eqjmj@hanafos.com

에 대한 연구도 역시 근원가족의 경험 즉, 부모 자신의 살아온 역사와 자신과 타인에 관한 스키마(schema)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Murphey, 1992). 그러나 국내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근원가족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는 있지만(장미자, 1998; 정문자·전연진·김진이, 2004), 신념의 형성과정에 근원가족의 영향력을 고려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아동발달에 관한 부모의 영향력을 심도 있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부모신념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내적인 수준, 즉 근원가족과의 경험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성인의 근원가족 내에서의 경험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목받게 된 이유는 Bowlby(1982)가 그의 애착이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아동기 경험의 영향력을 전 생애로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개인은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내적인 정신적 표상이나 실행모델(working model)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인성구조에 통합되어 매일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는 일생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표상 개념은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이후 부모로서의 행동 간의 연계과정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Morris(1980)와 Ricks(1985)는 영아기부터 시작하여 아동기 때 형성된 내적 표상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용하며, 부모가 되었을 때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자녀와 형성하는 다양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부모의 아동기 내적 표상과 자녀의 애착간의 연구를 하였다(Morris, 1980; Ricks, 1985). 대부분의 이들 연구에서는 자신의 부모를 긍정적으로 회고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며, 자신의 부모에게 덜 수용되었다고 회고하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불안애착을 갖게 되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 자신의 아동기에 대한 내적 표상이 실제로 그들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Sroufe와 Fleeson(1986)에 의하면 아동기에 주관적으로 축적된 경험으로 이루어진 표상은 부모와 아동의 역할 둘 다를 포함한다고 한다. 즉 부모-자녀 관계 전체가 내면화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 기대 즉 신념도 함께 내면화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내적 표상은 실행(working)이라는 역동적 측면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실제 양육행동으로 바뀌어지고 결국 그들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Bretherton, 1987). 따라서 부모의 아동기에 대한 내적 표상은 그들의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신념과 일차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부모의 아동기에 대한 내적 표상은 어린

시절 끊임없는 부모와의 일상생활의 상호작용 속에서 반복되며 축적되어진다. 전통적으로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구체적인 지표로서 의사소통이 강조되어 왔다(김지신, 1994; 박경란·장현숙, 1999). 의사소통은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을 원활히 해주고 갈등을 해소시켜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일진·김태현, 1991; 김오남·김경신, 1994; 장윤옥·전귀연, 1998). 따라서 부모자녀관계가 내면화된 것이 내적 표상임을 감안하면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의 올바른 형성 즉, 긍정적인 아동기 내적 표상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내적 표상이 다음세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부모와의 의사소통 역시 다음세대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다음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현재까지 소수이며(전연진·정문자, 2003),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기까지의 단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신념의 형성과 근원가족과의 경험간의 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하여 미혼의 성인남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미혼 성인남녀의 부모신념을 연구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미혼 성인들은 부모신념의 형성 초기에 있으므로 출산과 자녀양육에 의한 부모신념의 변화 가능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신념과 근원가족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Ninio(1979)와 Palacios(1990, 1996)는 부모의 신념은 아동양육의 경험을 가지기 전인 청소년후기에 이미 형성되며 사회적 표상의 형태를 취하여 일상적인 경험에 직면하면 경험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록 자녀양육의 경험이 없는 미혼 성인남녀라 할지라도 이미 아동발달 혹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신념의 기본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상황에 직면하면 사회적 표상의 형태로 가지고 있던 신념을 구체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신념은 자녀의 출산과 자녀와의 상호작용경험을 통해 변화한다. 이것은 아동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며 얻게 된 지식과 경험으로 인한 신념의 변화를 의미하며 부모 내적인 수준의 요인 즉 근원가족 내에서 경험과 관련된 요인이라기보다는 외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의한 변화이다. 따라서 출산, 양육의 경험이 없는 미혼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부모신념을 연구한다면 외적인 요인을 통제하고 순수한 근원가족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혼성인의 부모신념을 연구하는 것은 부모교

육 특히, 예비부모기 (preparenthood) 교육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이 일반적인 가족형태이기 때문에 부모가 적절한 양육을 아동에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아동은 그대로 잘못된 부모역할에 노출이 될 뿐 아니라 이를 대신해 줄만한 가족 내의 적절한 대리인을 찾기 어렵다(정옥분·정순화 2002). 더욱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은 세대간 전이된다는 연구결과들을 생각해볼 때 예비부모기 교육이 더욱 강조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건전한 부모-자녀 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지식이 결여된 채 부모기에 들어가고 있음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예비부모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예비부모들의 자녀관에 대해 살펴보거나(나은경, 1992), 결혼 전·후의 자녀 양육관의 변화(김미옥, 1984) 등을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비부모가 부모로서 갖게 되는 아동에 관련된 가치관이나 신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 없이는 효과적인 예비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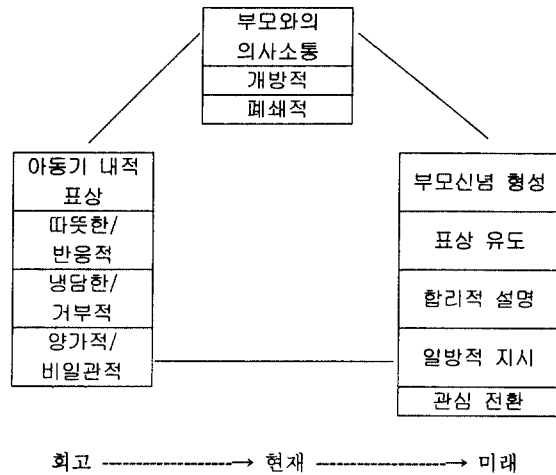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신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들에서 근원 가족 내에서의 경험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성인의 아동기 내적 표상과 그들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경험이 부모신념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예비부모기 교육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부모신념의 형성에 부모 자신의 내적 수준 즉, 근원가족 내에서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미혼 성인의 부모신념 형성, 아동기 내적 표상,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미혼 성인의 아동기 내적 표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아동기 내적 표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미혼 성인의 부모신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신념의 형성

1) 부모신념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과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태도나 행동에 관한 요인들을 중점으로 다루어 아동발달의 결과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발달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부모는 사고하고 지식을 조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부모 행동의 근거가 되는 사고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의 사고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귀인, 태도, 가치, 신념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그 중에서도 신념은 가장 포괄적이며 지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근본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Miller(1988)는 아동발달이나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모든 사고를 부모신념(parental beliefs)이라고 명명하였다. Sigel(1985)은 아동발달에 관한 부모의 신념을 아동과 아동양육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what)과 방법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how)이 통합된 실재의 구성(construction of reality)으로서, 경험적인 입증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믿음(truth)으로 정의하였다. 연구자들은 부모의 신념이 아동양육행동에 연관되며 이는 아동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는 가정 하에 부모의 신념과 아동의 실제수행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McGillicuddy-DeLisi(1985)는 부모의 신념, 실제 양육 행동, 아동의 수행능력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결과 신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첫째, 신념은 부모 행동의 근원이며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은 부모의 신념과 아동행동의 결과 간을 조정하는 중개요인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신념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부모의 신념은 아동행동결과를 직접 예측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시 부모의 어떠한 신념이 구체적 양육행동으로 전이되었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부모의 신념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부모의 신념은 어떠한 수준으로 구성되고 어떠한 범주로 나누어 질 수 있는가 그리고 아동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신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Newberger(1980)는 부모의 신념 수준을 네 단계로 구분하면서 각 단계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제1단계는 부모 중심적인 수준으로 자녀를 부모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여 인식하고 자녀양육을 부모의 관심이나 요구에 맞추어 해내려고 하는 부모의 사고수준을 말한다. 제2단계는 인습적 또는 규범 중심적 부모의 신념수준이다. 이는 아동양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그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나 규범에 근거하여 해결한다. 제3단계는 아동 지향적 수준으로 부모는 아동을 독특한 개별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경험이나 행동을 이해한다. 제4단계는 과정 또는 체계 지향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이 단계의 부모는 1 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관점을 모두 이해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복합적인 양자적 관계로 이해한다. 높은 단계에 속할수록 아동발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통합해 나가는 능력이 향상되고 자녀양육의 실제에서 융통성이 증가한다.

또한 아동을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하는가 혹은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하는가에 따라 부모의 신념은 크게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McGillicuddy-DeLisi(1985)는 면접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아동의 지식습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부모의 응답을 16개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요인 분석한 결과, 부모의 신념은 아동을 지식발달의 능동적 구성자로 보는 관점과 수동적 학습자로 보는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Johnson과 Martin(198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신념이 인지 발달적 신념과 성숙론적 신념으로 나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부모가 아동에 대해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의 양분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내재적 관점은 아동은 스스로의 추론과 주도를 통해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라는 자유차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며, 외재적 관점은 아동이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지시, 강화, 통제되는 것을 뜻한다(Sigel, 1992).

그렇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신념의 내용에 따라 아동의 발달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즉 아동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신념은 어떠한 내용이며 어떠한 범주에 분류되는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먼저 부모신념의 차이가 부모의 실제 행동의 차이로 나타나는가를 살펴 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Jimerson과 Bond(1999)는 아동 자신을 지식습득의 근원으로 보는 어머니는 권력중심의 양육전략을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의 발달과 습득의 근원이 아동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아동의 활동을 덜 주의 깊게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에게 직접적 지시를 많이 하며 민주적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직접적 지시를 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Kochanska, Kuczynski & Radke-Yarrow, 1989). 부모가 아동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의 차이는 아동행동이나 수행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Sigel(199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동이 스스로 인지적 과정을 거쳐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신념을 가질 때 수학과 물리영역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aefer와 Edgerton(1985)은 진보적 양육스타일의 부모와 자녀를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자라고 보는 부모의 자녀가 능력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상호작용적이고 개방적이며 능동적인 관점의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Sigel(1981)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존재라는 신념이 있을 때 자녀의 인지적 표상 수준을 신장시키는 아동양육방법을 채택하며, 자녀에 대해 수동적 존재라는 신념이 있을 때 자녀의 표상적 능력을 자극하는 양육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표상능력이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기호를 사용하여 지식을 조직해나가는 방법과 관련된 능력으로 이는 성숙에 의해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McGillicuddy-DeLisi, Sigel, & Johnson, 1979). Sigel(1981)에 의하면 특히 표상능력은 아동의 인지발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그는 부모는 아동의 표상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표상유도전략을 사용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표상유도전략이란 아동에게 과거의 사건, 사물 또는 상황을 정신적으로 재구성하게 하고 현재 일어나는 상황, 사건 등을 통하여 미래를 예견하고 다음에 할 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맥락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상황 등을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모 행동을 뜻한다. 즉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 현재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아동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과거를 회상시키거나 다가올 미래를 예견할 수 있도록 제안이나 개방적 질문과 같은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상유도전략을 사용하는 부모는 부모와 아동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자녀관계를 상호교환적 관계라고 봄으로써 보다 반응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스타일을 가진다. 또한 이들 부모는 아동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아동을 통제하므로 이유를 설명하며 관점을 수용할 기회를 준다(김암이, 2000).

한편 부모가 표상유도 전략을 얼마나 잘 시도할 수 있는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동, 아동발달, 부모-아동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신념으로부터 형성되며(김암이, 2000) 부모가 이러한 표상유도신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인지적, 동기적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민감성을 요구하는데(Johnson & Martin, 1985), 이러한 아동에 대한 지각은 성인의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부모가 아동은 능동적 구성자라는 신념 즉 표상유도신념을 가졌을 때 반응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스타일을 보이며 언어적으로는 아동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독립성과 활동성을 격려하고 제한을 적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상유도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아동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지식과 그들이 경험한 바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부모신념의 형성

부모의 신념이 이렇듯 아동발달을 예측하고 부모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부모의 신념은 어떻게 형성되며 부모신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도 연구되었다. Murphey(1992)는 부모의 신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을 세 수준으로 개념화하였다. 첫째, 거시적 수준으로서 문화나 하위문화가 여기에 속하고, 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부모 내 수준으로서 부모 자신의 살아 온 역사나 심리적 자원과 정서적 요인들이다. 이 요인들은 자신과 타인에 관한 스키마와 부모-자녀관계에서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부모-자녀수준으로서 시간적, 상황적 요구의 차이를 말한다. 부모의 신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예측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빈번히 연구된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성별 그리고 자녀양육경험이다.

대부분의 국내외연구에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한 요인인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신념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Johnson & Martin, 1985; Miller, 1988; 이희선, 1996), 아동의 성별 역시 부모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cGillicuddy-DeLisi, 1982; Block, 1983; 김연하, 1998). 또한 자녀양육경험과 부모의 신념변화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결과들은 아동과의 경험이 증가할수록, 즉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첫째 자녀보다 둘째 이상의 자녀일수록 부모들은 단순한 환경론적 설명보다 유전학적인 기반을 둔 개인차나 아동의 자기-조절, 자아발견의 과정 등 아동 내부의 힘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Sigel, 1981; McGillicuddy-DeLisi, 1982; Miller, 1988). 이것은 부모가 양육의 경험을 통해 아동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신념이 변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 본 부모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모두 부모 외적인 요인들이다. 아동발달에 관한 부모의 영향력을 심도 있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부모 외적인 요인 뿐 아니라 부모신념의 형성 발달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내적인 수준, 즉 근원가족과의 경험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2. 아동기 내적 표상과 부모신념

1) 아동기 내적 표상

Bowlby(1982)의 애착연구에 의하면 그의 애착연구에 새로운 이론적 개념구조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영아는 양육자의 반응성과 활용가능성을 바탕으로 내적으로 표상된 기대를 형성하며, 이 조직화된 기대가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되어 매일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다. Bretherton(1985)은 내적 실행모델이란 외부세계와 다른 사람들, 자신, 그리고 자신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측면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라고 하였으며, Ainsworth(1982)는 아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자신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며 어머니의 근접가능성과 반응성에 대한 아동의 기대는 아동의 내적 표상에 통합되어 후일 사회적 관계에서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Bowlby(1982)에 따르면 이것은 아동의 반복된 일상경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만일 애착대상이 환경을 탐색하려고 하는 아동의 욕구를 존중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아동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아동은 자신에 대한 내적 표상을 소중하고 독립적인 것으로 발달시킬 수 있으나, 위안을 얻고 주위환경을 탐색하려는 아동의 노력을 부모가 자주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자신에 대한 내적 표상을 가치 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Bretherton(1987)에 의하면 내적 실행모델이 일단 구성되면 개인이 자신의 사상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은 초기의 모델을 계속 강화하게 된다. 또한 한번 조직화되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려 하고 변화에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의 내적 표상의 재구조화는 어렵다. 따라서 영아기 부터 시작하여 아동기 때 형성된 내적 실행모델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용하고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나타내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자녀와 형성하는 애착관계에도 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적 표상 개념은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이후 부모로서의 행동 사이의 연계과정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연구자들은 영아기부터 시작하여 아동기 때 형성된 내적 표상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용하며, 부모가 되었을 때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자녀와 형성하는 다양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주로 부모의 아동기 내적 표상과 자녀의 애착 사이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Morris, 1980; Ricks, 1985),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자신의 부모들을 긍정적으로 회고하는 사람들의 경우 안정 애착아를 가지며, 불안 애착아의 어머니의 경우 안정 애착아의 어머니보다 자신의 부모에게 덜 수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임상아동들에 대한 연구(Crowell & Feldman, 1988; Deklyen, 1992)에서도 나타났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임상아동의 어머니의 경우, 성인 애착면접에서 불안유형이 과다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아기 이후의 상호작용에서도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Crowell과 Feldman(1988)이 놀이장면에서 24-42개월 된 자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안정유형의 내적 표상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와 따뜻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거부유형의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지지나 밀접함이 적었고, 집착유형의 어머니들의 경우 아동에게 비일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아동기에 대한 내적 표상의 긍정적 유형은 자녀의 애착형성과 발달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며 부정적 내적 표상은 아동에게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아동기 내적 표상과 부모신념

부모의 자신의 아동기에 대한 내적 표상이 실제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를 살펴본 연구(Sroufe & Fleeson, 1986)에 의하면 아동기에 주관적으로 축적된 경험으로 이루어진 표상은 부모와 아동의 역할 둘 다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부모-자녀 관계 전체가 내면화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 기대, 신념도 함께 내면화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신들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던 태도나 자신들에게 기대했던 방식을 기억 속에 통합시켜 그들의 자녀의 욕구와 행동을 해석한다.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부모는 자녀의 욕구와 행동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불안정한 애착유형의 부모는 자녀의 애착신호반응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는데 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애착신호가 무시되거나 왜곡되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애써 이를 외면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이다(Main et al., 1985). 또한 이러한 부모의 내적 표상은 정신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실행이라는 역동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데 그 모델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Bretherton, 1987). Bowlby(1973)에 의하면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상적 항상성(representational homeostasis)”에 가장 적게 도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행동은 이러한 부모의 기대와 신념에 맞추도록 미묘하게 형성화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인이 가진 아동기 내적 표상 내에는 그들의 부모가 자신을 양육할 때 보여주었던 태도와 기대, 신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실행이라는 역동적 측면을 통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실제 양육행동으로 바뀌어 지고 결국 그들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부모의 아동기에 대한 내적 표상은 그들의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태도 및 가치관, 신념과 일차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3. 부모와의 의사소통

1)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유형에 대한 내적 표상은 끊임없는 일상 생활의 상호작용 속에서 반복되며 축적된다. 전통적으로 의사소통은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구체적인 지표로 강조되어 왔다. Bretherton(1987)은 아동과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는 서로 얼마나 정서적으로 개방적이고, 유창하며 응집력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양육태도 가운데에서 가장 잘 나타나며(박경란·장현숙, 1999),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이 효과적인 양육과 건전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하여 부모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길 원하며(김지신, 1994),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또한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 연구한 장미자(1998)의 연구를 보면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아동기나 청소년기 때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수준에 대하여 많은 양을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 내적 표상의 대부분은 부모와의 축적된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기 긍정적인 내적 표상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바람직한 부모관계의 형성은 많은 부분 의사소통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부모자녀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개방적이고 일차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 갈등을 감소시키고(신일진·김태현, 1991), 자녀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장운옥·전귀연, 1998),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기능적이고 만족스럽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오남·김경신, 1994).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와의 안정적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동, 청소년기 뿐 아니라 성인기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권위형과 불성실형의 의사소통유형이 성인자녀와의 갈등을 증가시키며 친밀한 의사소통 유형은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신일진·김태현, 1991).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부모자녀관계의 갈등을 감소시켜주는 이유는 이를 통해 부모-자녀간의 연대성과 안정성을 유지시켜주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이다(정나영·이정숙, 1999). 또한 부모 자녀간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김순옥, 1995).

이렇듯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

계의 올바른 형성 즉, 긍정적인 아동기 내적 표상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내적 표상이 다음세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부모와의 의사소통 역시 다음세대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 전연진과 정문자(2003)는 부모의 근원가족과의 분화경험은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해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다음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소수이며, 부모의 근원가족과의 의사소통이 다음세대의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의 단계를 설명해주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근거가 되는 부모신념의 형성과정에 근원 가족 내에서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의 K 대학교와 대전의 D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의 남녀비율은 남자가 39.3%, 여자가 60.7%이었으며 연령분포는 만18세부터 만 29세였다. 183명의 연구대상자 중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았거나 응답이 부실한 29부를 제외하고 총 154부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아동기 부모의 양육유형에 대한 내적 표상

본 연구에서는 미혼 성인 남녀의 아동기 내적 표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2000년(제32차)에 만26세의 종단연구 대상자들에게 응답케 한, 아동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유형에 대한 회고식 6문항(Hazan & Shaver, 1987)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따뜻한/반응적 양육유형, 냉담한/거부적 양육유형, 양가적/비일관적 양육유형을 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들은 과거 아동기(5세-12세)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5

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2) 부모와의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미혼 성인이 그들의 부모와 어떠한 형태와 수준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5)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김수연(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Barnes와 Olson의 척도는 부모용 의사소통 척도와 자녀용 의사소통 척도로 나뉘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용 의사소통 척도(아버지와의 의사소통 20문항,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홀수 번호의 문항은 개방적인 의사소통에 관해 질문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짝수번호의 문항은 폐쇄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내적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Cronbach $\alpha=.89$, 폐쇄적 의사소통은 Cronbach $\alpha=.86$ 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Cronbach $\alpha=.88$, 폐쇄적 의사소통은 Cronbach $\alpha=.84$ 이었다.

3) 부모신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미혼 성인이 가지고 있는 부모신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Sigel, McGillicuddy-DeLisi 와 Johnson(1980)이 제작한 의사소통전략질문지(Communication Strategy Questionnaire)를 김임이(2000)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에 맞게 4가지의 유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igel 등의 의사소통전략 질문지는 대상자에게 부모와 아동이 처한 일상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12가지의 가설적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질문함으로써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신념을 파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척도는 아동학을 전공한 박사 2인의 도움을 받아 수정되었으며, 17명의 미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되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부모의 4가지 상호작용신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표상유도(Distancing response)- 문제해결 상황에서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는 상호작용반응으로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의 상황을 표상 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반응이다. 부모가 진솔보다 질문을 사용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언어적 상호작용

을 촉진하고 순환적으로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켜 인지 발달을 촉진한다.

② 합리적 설명(Rational authoritative response) - 아동에게 합리적인 이유, 즉 어떤 사실이나 규칙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상호작용신념이다.

③ 일방적 지시 반응(Direct authoritative response)-이유나 설명 없이 문제해결 방안을 직접 아동에게 지시하는 상호작용신념이다.

④ 관심전환(Diverting response) - 현재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아동의 주위를 전환시키는 상호작용신념이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자는 서울의 K 대학교와 대전의 D 대학교에서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4년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17일 동안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1.5 통계프로그램의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미혼 성인의 부모신념 형성, 아동기 내적 표상,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일반적 경향

미혼성인을 대상으로 부모신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

<표 1> 미혼 성인의 부모신념 평균과 표준편차

미혼 성인의 부모신념	성별(N)	평균	표준편차
표상유도	남(59)	2.58	3.01
	여(91)	3.23	2.83
	전체(150)	2.97	2.90
합리적 설명	남(59)	4.90	2.76
	여(91)	4.73	2.39
	전체(150)	4.93	2.53
일방적 지시	남(59)	1.37	1.29
	여(91)	1.13	0.93
	전체(150)	1.23	1.09
관심전환	남(59)	2.19	1.57
	여(91)	1.84	1.38
	전체(150)	1.97	1.47

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녀 모두 합리적 설명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남=4.90, 여=4.94), 그 다음으로는 표상유도(남=2.58, 여=3.23), 관심 전환(남=2.19, 여=1.84)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방적 지시에 대한 평균이 가장 낮았다(남=1.37, 여=1.13). 이는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합리적 설명반응을 가장 많이 한다는 이희선(1996), 김삼이(2000)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합리적 설명, 일방적 지시와 관심전환의 경우 남성의 평균이 여성에 비하여 높았으나 표상유도 신념의 경우 여성의 평균이 남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혼성인들은 합리적 설명에 가장 많은 반응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표상유도신념에 좀더 많이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

미혼성인의 아동기 부모의 양육유형에 대한 내적 표상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양육유형에 관한 내적 표상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따뜻한/반응적 양육유형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아버지=3.61, 어머니=4.23), 그 다음으로 높은 표상유형은 양가적/비일관적 양육유형(아버지=2.66, 어머니=2.14)이었다. 반면 냉담한/거부적 양육유형의 평균은 가장 낮았다(아버지=1.37, 어머니=1.19). 또한 냉담한/거부적 양육유형과 양가적/비일관적 양육유형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평균이 높았으며, 따뜻한/반응적 양육유형의 경우 어머니의 평균이 아버지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미혼성인들은 자신의 아동기 때 부모의 양육유형을 대체로 따뜻하고 반응적이라고 회상하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따뜻하고 반응적으로 표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성인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 결과<표 3>, 아버지, 어머니와의 경우 모두 개방적 의사소통 평균(아버지=31.83, 어머니=38.84)이 폐쇄적 의사소통 평균(아버지=22.69, 어머니=19.25)보다 높았다. 개방적 의사소통의 평균은 어머니 쪽이 더 높았으나, 폐쇄적 의사소통의 평균은 아버지 쪽이 더 높았다. 따라서 미혼성인들은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주로 하며, 특히 개방적 의사소통은 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은 아버지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최규련(1998)과 김순옥(1995)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2. 미혼 성인의 아동기 내적 표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미혼성인의 아동기 부모의 양육유형에 대한 내적 표

<표 2> 미혼 성인의 아동기 내적 표상 평균과 표준편차

아동기 내적 표상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	따뜻한 / 반응적 양육유형	남(59)	3.61	1.05
		여(90)	3.61	1.03
		전체 (149)	3.61	1.04
	냉담한/ 거부적 양육유형	남(59)	1.44	0.75
		여(90)	1.32	0.59
		전체 (149)	1.37	0.66
	양가적 / 비일관적 양육유형	남(59)	2.78	1.18
		여(90)	2.58	1.04
		전체 (149)	2.66	1.10
어머니	따뜻한 / 반응적 양육유형	남(58)	4.26	0.81
		여(91)	4.22	0.73
		전체 (149)	4.23	0.76
	냉담한 / 거부적 양육유형	남(58)	1.26	0.52
		여(91)	1.15	0.47
		전체 (149)	1.19	0.49
	양가적 / 비일관적 양육유형	남(58)	2.03	1.04
		여(91)	2.20	1.03
		전체 (149)	2.14	1.03

<표 3> 미혼 성인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평균과 표준편차

부모와의 의사소통		성별(N)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와 의사소통	개방적 의사소통	남(56)	32.62	7.20
		여(89)	31.30	6.75
		전체(145)	31.83	6.94
	폐쇄적 의사소통	남(56)	22.71	6.27
		여(89)	22.67	5.97
		전체(145)	22.69	6.06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개방적 의사소통	남(56)	38.30	6.72
		여(89)	39.18	6.84
		전체(145)	38.84	6.79
	폐쇄적 의사소통	남(56)	19.43	4.89
		여(89)	19.14	5.35
		전체(145)	19.25	5.17

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기 내적 표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사이에 전체적으로 매우 유의한 상관 이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반응적 양육 유형 내적 표상은 아버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정적인 상관($r=.48^{**}$)이 있었고 폐쇄적 의사소통과는 부적인 상관($r=-.54^{**}$)이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냉담한/거부적 양육유형($r=.46^{**}$)과 양가적/비일관적 양육 유형($r=.34^{**}$)은 아버지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어머니에 대한 따뜻한/반응적 양육유형 내적 표상은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정적인 상관($r=.36^{**}$)이 있었고 폐쇄적 의사소통과는 부적인 상관($r=-.39^{**}$)이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에 대한 냉담한/거부적 양육유형 ($r=.27^{**}$)과 양가적/비일관적 양육유형($r=.26^{**}$) 내적 표상은 폐쇄적인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과 어머니와의 의사소 통이 일부 상관이 있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도 일부 상관이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반응적 내적 표상은 어머니와의 개방 적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r=.17^*$), 그리고 폐쇄적 의사소 통과 부적 상관($r=-.25^{**}$)이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따뜻 한 반응적 양육유형은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부적 상관($r=-.22^{**}$)이 있었으며 냉담한 /거부적 양육유 형은 폐쇄적 의사소통과 정적인 상관($r=.26^{**}$)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유형에 대 하여 따뜻하고 반응적으로 표상할수록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부모의 양육유형에 대하여 냉담하거나 거부적 혹은 양가적/비일관적이라고 표상할수록 부모와 폐쇄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또, 아버지에 대한 내 적 표상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사이에 그리고 어머니

에 대한 내적 표상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사이에 일부 상관이 존재하고 있었다.

3. 아동기 내적 표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부모신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

미혼성인의 아동기 내적 표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미래의 자녀에 대한 부모신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 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부모의 양육유형에 대한 내적 표상과 미혼성인의 부 모신념과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아버지의 내적 표상은 미혼성인의 합리적 설명신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06, F=3.3^*$). 유의미한 변수는 양가적/비일관적 양육유형($\beta=-.19^*$)이었다.

한편,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은 미혼성인의 일방적 지시 신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R^2 = .08, F=2.61^*$). 유의미한 변수는 양가적/비일관적 양 육유형($\beta=.22^*$)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내적 표상과 표상 유도 신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가적/비일관적 양육 유형($\beta=-.24^*$)이 표상유도신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의 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유의미한 관계는 입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의 양육유형에 대한 내적 표상 은 미혼성인의 부모신념 중 합리적 설명신념을 형성하 는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양가 적/비일관적으로 회상하는 미혼성인은 합리적 설명신념 을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자신의 어머니의 양육유형에 대하여 양가적/비일관 적이었다고 회상하는 미혼 성인은 일방적 지시 신념을 많이 갖고 있으며 표상유도 신념을 덜 갖고 있다고 할

<표 4> 미혼 성인의 아동기 내적 표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		아동기 내적 표상	아버지			어머니		
			따뜻한 /반응적 양육유형	냉담한 /거부적 양육유형	양가적 /비일관적 양육유형	따뜻한 /반응적 양육유형	냉담한 /거부적 양육유형	양가적 /비일관적 양육유형
아버지	개방적 의사소통	.48**	-.40**	-.37**	.15	-.15	-.12	
	폐쇄적 의사소통	-.54**	.46**	.34**	-.22**	.26**	.19	
어머니	개방적 의사소통	.17*	-.08	-.19*	.36**	-.21**	.22**	
	폐쇄적 의사소통	-.25**	.13	.17*	-.39**	.27**	.26**	

*p<.05, **p<.01

<표 5> 아동기 내적 표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미혼성인의 부모신념형성에 미치는 영향력

변인		표상유도		합리적 설명		일방적 지시		관심전환	
		B	β	B	β	B	β	B	β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	양가적/비일관적 양육유형	.31	.12	-.45	-.19*	-.08	-.08	.23	.17
		R ²		.06		.01		.03	
		F값		.72		3.3*		.40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	양가적/비일관적 양육유형	-.62	-.24*	.27	.13	.19	.22*	.03	.02
		R ²		.03		.08		.02	
		F값		1.98		1.05		2.6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개방적	.17	.39**	-.10	-.28*	-.03	-.18	-.01	-.04
		R ²		.046		.02		.00	
		F값		7.22**		3.16*		1.29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개방적	.28	.69***	-.18	-.47***	-.03	-.18	-.05	-.22*
		R ²		.38		.021		.032	
		F값		32.89***		11.90***		1.547	

*p<.05, **p<.01, ***p<.001

수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미혼 성인의 부모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미혼성인의 부모신념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변인으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미혼성인의 표상유도 신념(R²=.10, F=7.22**)과 합리적 설명신념(R²=.046, F=3.16*)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표상유도신념(β=.39**)과 합리적 설명신념(β=-.28*)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역시 미혼성인의 표상유도 신념(R²=.32, F=32.89***)과 합리적 설명신념(R²=.38, F=11.90***)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개방적 의사소통은 미혼 성인의 표상유도 신념(β=.69***)과 합리적 설명신념(β=-.47***)과 관련 있는 유의미한 변수이었다. 한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관심전환 신념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적인 설명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관심전환신념(β=-.22*)과 관련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미혼성인의 표상유도 신념과 합리적 설명신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

소통을 할수록 미혼성인은 표상유도 신념을 잘 형성하고 있으며, 합리적 설명신념은 적게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미혼 성인은 관심전환 신념을 덜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신념의 형성기에 있는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양육유형에 대한 내적 표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미래의 자녀에 대한 부모신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미혼성인들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합리적 설명에 대한 신념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이희선, 1996; 김암이, 2000),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은 결혼이나 출산, 양육 등의 경험과 상관없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합리적 설명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양육자가 합리적 설명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 상황

이 발생시 양육자가 합리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김압이(2000)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합리적 설명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자녀에 대해 권위주의적 사고를 시사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표상유도 신념을 외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 적게 가지는데,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수준이 높아도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사고를 촉진하기보다 그 상황에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다음에 다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만 갖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양육자는 합리적 설명 신념보다는 표상유도 신념, 즉, 아동 스스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아동을 능동적으로 보는 관점이며, 이는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학의 교양과정이나 결혼 전 예비부모기 교육을 통해 아동의 사고를 촉진하고 아동을 능동적으로 보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미혼 성인들이나 예비 부모들에게 가르치고 그러한 상호작용방법의 실체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혼성인들은 자신의 아동기 때의 부모 양육유형을 대체로 따뜻하고 반응적이라고 회상하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따뜻하고 반응적으로 표상하고 있었다. 또한 미혼성인들은 부모와 주로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특히 개방적 의사소통은 어머니와 더 많이 이루어지고, 폐쇄적 의사소통은 아버지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현재 미혼 성인들이 어머니가 표현적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부모역할로 분화된 가정 속에서 성장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미혼성인의 부모신념의 하위 영역 중에서, 표상유도 신념만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는데, 이는 자녀를 보다 긍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유리한 신념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미혼 성인들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양육에 적합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양육에서 적합한 발달을 한다는 주장들이 재확인되었다.

셋째,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유형에 대하여 따뜻하고 반응적으로 표상하는 미혼성인은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부모의 양육유형에 대하여 냉담하거나 거부적 혹은 양가적/비일관적이라고 표상하는 미혼성인은 부모와 폐쇄적 의사소통을 한다. 이는 어린 시절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긍정적인 내적 표상을 형성하였던 부모자녀관계가 자녀가 성인인 된 후에도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지속되며, 이와는 반대로 냉담하거나 거부적인 상호작용으로 부정적인 내

적표상을 형성하였던 부모와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비슷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아동기 내적 표상과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밀접한 연관성과 부모자녀 상호작용 유형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상관이 존재하고, 어머니와의 내적 표상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상관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이 일방통로를 통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순환적인 의사소통망(Galvin & Brommel, 1982)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넷째,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은 미혼성인의 부모신념 중 합리적 설명 신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신의 아버지의 양육유형에 대하여 양가적/비일관적으로 회상하는 미혼성인은 합리적 설명 신념을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의 양육유형에 대하여 양가적/비일관적이었다고 회상하는 미혼 성인은 일방적 지시 신념을 많이 갖고 있으며 표상유도 신념을 덜 갖고 있다.

우선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이 미혼성인이 갖는 부모신념, 특히 합리적 설명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이는 Parsons의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와 맥락을 같이 하는 전통적인 개념들 즉, '객관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 '이성적이고, 판단자적 태도를 내리는 사람' 등과 연관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규칙, 사실, 이성적 판단 등을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합리적 설명 신념은 남성적 인지양식인 분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양가적/비일관적 내적 표상을 갖고 있는 미혼성인은 어린 시절부터 올바르게 아버지를 내면화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 설명 신념을 잘 발달시키고 있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합리적 설명신념을 발달시키는 데에는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시 합리적 설명 신념을 선호하는 것 자체가 자녀의 자유로운 언어적 표현을 유도하는 개방적 의사소통 방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합리적 설명 신념의 내면화는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보다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모델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편이 더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유형에 대해 양가적/비일관적이었다고 회상하는 미혼성인은 일방적 지시 신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수용과 거부가 혼재하는 혼란스러운 양육태도가 미혼 성인들의

기억 속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자신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표상유도반응과 같은 능동적이고, 아동을 존중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못하고 명령이나 지시를 주로 사용하는 일방적 지시 신념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즉, 어린 시절 부모의 양가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그들의 의사와 욕구를 존중받지 못한 미혼 성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기억들을 통합하여 내면화하고, 미래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이러한 내적 표상 때문에 아동의 의사와 욕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서 왜곡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무시하여 일방적 지시 신념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다섯째,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미혼성인의 표상유도신념과 합리적 설명 신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 아버지,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미혼성인은 표상유도신념을 잘 형성하고 있으며, 합리적 설명신념은 덜 형성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미혼 성인은 관심전환 신념을 덜 형성한다.

이렇듯, 개방적 의사소통이 바람직한 부모신념, 즉 표상유도신념을 형성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더욱이 아동기 내적 표상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표상유도신념에 보다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는 유의미한 변수임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의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동기 내적 표상은 한시적인 경험에 대한 회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다양한 경험에 의해 부모자녀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적절한 양육을 하는 부모 대신에 바람직한 내적 표상의 대상이 되는 다른 중요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기 내적 표상이 부모신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은 분명하나 그 영향력이 희석되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은 아동기 내적 표상을 형성하는 주요내용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기 이후 계속적으로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영향력이 배가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이러한 내용들은 비록 자녀가 아동기 때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부모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해 향후 다음세대를 양육하는데 바람직한 부모신념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모신념의 형성에 근원가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근원가족 내에서의 경험, 즉, 아동기 내적 표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미혼성인의 미래의 자녀에 대한 부모신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예비부모기 교육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특정지역의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화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질문지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아동기 내적 표상이나 부모신념에 관한 심층적인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면접을 통하여 아동기 내적 표상을 측정하고 부모신념과의 관계를 연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현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서로 비교한다면 부모신념의 형성과 근원가족 내에서의 경험에 관한 많은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부모신념형성, 내적 표상, 부모와의 의사소통

참 고 문 헌

- 김미옥(1984). 결혼전후 성인의 유아기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1998). 가정조사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순화모델의 척도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옥(1995). 10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6), 1-10.
- 김압이(2000). 아동의 지식 습득과정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및 교육전략과 유아의 문제해결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하(1998). 어머니의 부모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 · 김경신(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5-119.
- 김지신(199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1, 85-107.
- 나은경(1992). 고등학생의 부모기에 대한 이해와 유아기 자녀교육에 관한 태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란 · 장현숙(1999). 아동 가족 및 모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3), 143-165.
- 신일진 · 김태현(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9(1), 27-44.
- 이희선(1996). 아동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신념. *이동학회지*, 16(1), 65-78.
- 장미자(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 어머니의 내적 실행 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윤옥 · 전귀연(199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 42, 145-166.
- 전연진 · 정문자(2003).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8), 139-158.
- 정나영 · 이정숙(1999). 아동의 행동문제 ·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61-71.
- 정문자 · 전연진 · 김진이(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2), 133-150.
- 정옥분 · 정순화(2002). 부모교육. 양서원.
- 최규련(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0-142.
- Ainsworth, M. D. S.(1982). Attachment: Retrospect and prospect.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pp. 3-33). New York: Basic.
- Barnes, H. L., & Olson, D. 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lock, J. H.(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New York: Basic.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 3-3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Bretherton, I.(1987). New perspectives on attachment relations: Security,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pp. 1061-1100). New York: John Wiley.
- Crowell, J. A., & Feldman, S. S.(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 Deklyen, O. M.(1992). *Childhood psychopathology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representation of attachment: A comparison of normal and clinic-referred disruptive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Galvin, K. M. & Brommel, B. J.(1982). *Cohesion and Change*. Scott, Foresman and Company.
- Hazan, C., & Shaver, P. R.(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Jimerson, T. & Bond, L. A.(1999). Mothers' epistemologies, Turn-taking and contingent interaction with preschoolers.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pril, 1999, Albuquerque, N. M.
- Johnson, J. E. & Martin, C.(1985). Parents' beliefs and home learning environments: Effects on cognitive development.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pp. 25-50).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Kochanska, G., Kuczynski, L. & Radke-Yarrow, M.(1989). Correspondences between mother's self-reported and observed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0, 56-63.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 33-3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McGillicuddy-DeLisi, A. V., Sigel, I. E., & Johnson, J. E.(1979). The family as a system of mutual influences: Parental beliefs, distancing behaviors and children's representational thinking(pp.

- 91-106). In M. Lewis & L. A. Rosenblum(Eds.), *The Child and Its Family*. New York : Plenum Press.
- McGillicuddy-DeLisi, A.V.(1982). Parental beliefs about developmental processes. *Human Development*, 25, 192-2000.
- McGillicuddy-DeLisi, A.V.(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7-24).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Miller, S. A.(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Morris, D.(1980). Infant attachment and problem solving in the toddler: *Relations to mother's family histo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Murphey, D.A.(1992). Constructing the child: Relations between parents' beliefs and child outcomes. *Developmental Review*, 12, 199-232.
- Newberger, C. M.(1980). The cognitive structure of parenthood: Designing a descriptive measure. In R. L. Selman & R. Yando(Eds.). *Clinical-Developmental psycholog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pp. 45-67). San Francisco: Jossey-Bass.
- Ninio, A.(1979). The naive theory of the infant and maternal attitudes in two subgroups in Israel. *Child Development*, 50, 976-980.
- Palacios, J.(1990). Parents' ideas about the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nswers to some ques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3(2). 137-155.
- Palacios, J.(1996). Parents' and adolescents' ideas on children origins and transmission of intra-cultural diversity. In S. Harkness & C. M. Super(Eds.). *Parents' cultural belief systems*(pp, 215-288). N. Y.: Guilford Press.
- Ricks, M. H.(1985). The social transmission of parental behavior: Attachment across gener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 211-227).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 Schaefer, E. S. & Edgerton, M.(1985). Parent and child correlates of parental modernity.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287-318).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igel, I. E.(1981). Social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onal thought: Distancing theory. In Sigel, I. E., Brodzinsky, D. & Golinkoff, R.(Eds.). *New directions in Piagetian theory and practice*(pp. 203-217).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igel, I. E.(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345-371).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igel, I. E.(1992). The belief-behavior connection: A resolvable dilemma?.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nd ed.(pp. 433-456).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roufe, L. A., & Fleeson, J.(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 (Eds.),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Relationships*.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2004. 06. 30 접수; 2004. 08. 09 채택)